

1998학년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중세 기독교교육의 고찰과 칼빈주의 교육의 필요성

안양대학교 신학대학원

신학연구과 기독교교육전공

차 주 호

중세 기독교교육의 고찰과 칼빈주의 교육의 필요성

指導 이은규 교수

이 論文을 碩士學位論文으로 提出함

1998년 12월 4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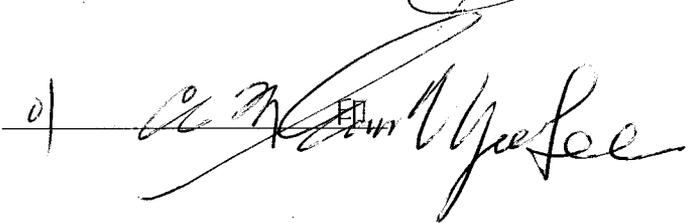
안양대학교 신학대학원

목회학과 기독교교육전공

차 주 호

차 주 호의 卒業 論文을
合格으로 判定함.

審査委員長 리 영일 印 

審査委員 이  印

審査委員 _____ 印

審査委員 _____ 印

안양대학교 신학대학원

1998 년 12 월

목 차

| | | | |
|------|----------------|-------|----|
| 서 | 론 | ----- | 1 |
| 1. | 문제제기 | ----- | 1 |
| 2. | 연구목적 | ----- | 3 |
| 3. | 방법과 진행 | ----- | 4 |
| I. | 교육의 개념 정의 | ----- | 6 |
| 1. | 기독교교육의 개념 | ----- | 6 |
| ① | 기독교 | ----- | 6 |
| ② | 기독교교육의 정의 | ----- | 7 |
| 2. | 기독교 교육의 목적 | ----- | 9 |
| II. | 중세기의 기독교 교육 | ----- | 10 |
| 1. | 시대적 배경 | ----- | 10 |
| 2. | 사상적 배경 | ----- | 11 |
| 3. | 스콜라주의 | ----- | 14 |
| ① | 스콜라신학의 발달 | ----- | 15 |
| ② | 스콜라신학의 영향 | ----- | 17 |
| 4. | 신비주의 | ----- | 17 |
| 5. | 교교육의 배경 | ----- | 20 |
| 6. | 에라스무스의 인문주의 교육 | ----- | 22 |
| III. | 칼빈주의 기독교 교육 | ----- | 23 |
| 1. | 칼빈의 생애 | ----- | 23 |

| | |
|---------------------------------|----|
| 2. 칼빈의 사상----- | 26 |
| 3. 칼빈주의 정의----- | 30 |
| 4. 칼빈주의 입장에서 본 교육관----- | 35 |
| ① 교육의 기초----- | 35 |
| ② 교육의 대상----- | 36 |
| ③ 교육의 목적----- | 37 |
| ④ 교육의 내용----- | 38 |
| ⑤ 교육의 방법----- | 41 |
| 5. 교회의 교육적 사역----- | 41 |
| 6. 칼빈주의 목회원리----- | 44 |
| ① 칼빈의 강조점은 말씀의 순수한 전파였다.----- | 44 |
| ② 칼빈이 강조한 것은 성례였다.----- | 52 |
| ③ 칼빈이 강조한 것은 권징과 훈련이다.----- | 56 |
| ④ 칼빈이 주안점을 두고 힘쓴 것은 교육이었다.----- | 62 |
| IV. 칼빈주의적 개혁신학과 한국교회의 중심사상----- | 67 |
| 1. 한국적 사상과 기독교 사상의 차이점----- | 67 |
| 2. 성경의 기본사상과 오늘날의 위험한 사상----- | 68 |
| 3. 한국교회의 현실적 당면과제----- | 69 |
| V. 결론----- | 69 |
| 참고문헌 | |

서 론

1. 문제제기

다양하게 문제가 제기되는 기독교의 교육활동은 좋은 일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무분별하게 목적과 방향도 없이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불만스러운 것이 사실이다. 교육은 인간에게 새로운 것을 알려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많은 사람의 인생의 길잡이 역할과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다시말 하면 교육을 통해 기독교 교회의 미래가 결정되고 더 나가서는 한국 전반적인 사회와 세계의 모든 분야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교육에는 자연교육(Natural Education), 비공식적 교육(Informal Education), 공식적 교육(formal Education)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인간은 자연의 여러 가지 일을 경험하면서 못하던 것을 터득하게 되는데, 배우기는 하지만 이것은 조직적으로 알려주지는 못한다 이것이 자연교육의 한계이다. 또 가정에서 자녀들을 가르치고, 교육을 한다. 이것을 비공식적 교육이라 하고 학교나 교회 혹은 공식적인 시간을 통해 배우는 것을 공식적 교육이라 한다. 이것은 보통 사람들이 말할 때 일컫는 교육이다. 이 교육은 누가 가르치느냐에 따라서 성패가 달라진다. 교육 목적이 잘못된 것이라면 아무리 최상의 교육 내용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좋은 교육을 생산할 수 없다. 반면에 최고의 고상한 목적을 가졌다 할지라도 효과적으로 가르치지 못한다면 그 목적은 성취되지 못한다. 따라서 공식적 교육에서 배우는 교육이라도 비공식 교보다 못 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또한 계획과 제도도 없는 교육이 실시된다면 결과에 따라 비극적인 사태(기독교 이단)를 야기할 것이다. 누구라도 교육의 성격을 분명

하게 이해하게 된다면 교육이란 불가피 한 것임을 알게 될 것이다. 기독교 교육을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누구라도 일반적인 교육의 성격을 바로 이해하고 종교 교육의 성격도 바로 이해해야 한다. 종교교육이란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유지케 함으로서 인간에게 변화를 발생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인간이 하나님을 바르게 사색하며 그 앞에서 바르게 처신케 함을 교육한다. 종교란 인간 본질의 한 부분이요 인간이 결코 도피할 수 없는 것이다. 종교는 인간의 의지를 초월하여 인간을 포용한다. 종교는 인간의 전체를 지배하고 그 인간이 지닌 종교적 태도와 사상은 그를 에워싸고 있는 환경에 대응하는 능력이 된다. 종교가 그렇듯이 종교 교육도 그러하다. 종교 교육은 인간의 참된 목적을 설정하고 일반교육과 어울려 그 교육의 방향을 알게 하는 것이 종교 교육이다. 그런 의미에서 종교교육은 일반교육과 항상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야 한다. 본 논문을 쓰게 된 동기는 어려운 사회일 수록 바른 교육을 통해 그 어려움을 극복하듯이 올바른 종교교육을 실행하여 잘못된 가치관을 바로 정립시켜 기독교와 사회의 미래를 밝히기 위함이다. 또 교파를 초월하여 바른 종교교육을 실행하여 교회학교 학생들에게 참된 기독교 교육을 하자는 데 의미가 있다.

2. 연구목적

이 논문의 목적은 간단하다. 잘못된 퇴폐 교육을 바로 시정하여 다시 “회생”시키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기독교 교육의 목적은 인간과 하나님의 상호작용을 말하는 것이다. 이것이 효과적으로 실행될 때 많은 변화가 발생된다. 첫째 영혼이 살아난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듣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놀라운 변화가 그에게서 발생하는데 곧 죄 안에서 죽었던

것이 하나님 안에서 살아나는 것이다. 이것은 인간의 노력으로는 변화시킬 수 없는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적적인 것이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방법이나 비공식적 교육을 통해서도 이루어진다. 인간에게 있어 변화 주체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둘째 삶이 변화된다. 이것은 전자가 있을 때 가능한 것이다. 변화의 다음은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물론 이 같은 일도 하나님이 역사 해야 가능하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는 것이다. 모든 권세는 그리스도에게 있다. 이 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그리스도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함께 함을 통해 우리는 많은 영혼들을 가르치며, 돌볼 의무가 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할 것인가의 문제도 남아 있다. 본 논문이 말하고자 하는 것도 바로 여기에 있다.

3. 방법과 진행

이 논문은 많은 저자들의 내용을 토대로 해서 객관적이고, 누구나 신뢰할 수 있는 기독교적 교육에 대하여 쓰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실제 보다는 이론에 치우쳐 있었던 교육의 현장을 실제적인 원리를 토대로 교육의 과정을 쓸 것이다. 또한 성경 적인 내용과 역사적인 내용에 벗어나지 않고 역사적 교육을 현장에서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실재를 종교개혁 이후 인본주의 사상과 계몽주의에 의하여 기독교의 교육이 진리에서 조금 떠난 것도 사실이다. 지금 이 시대에도 기독교적 교육을 한다고 하지만 현실의 배경을 무시한 교육, 내용과 모양이 어울리지 않는 교육을 하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내용의 것들을 성경과 역사적인 토대 위에서 다시 재해석하여 바른 교육을 하는데 논문의 목적을 둔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술하지 못한다. 하지만 지도하는

교수님과 같이 상의하여 좋은 논문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I. 교육(Education)의 개념 정의

교육이란 인간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행동의 변화를 시키는 것이다. 어원적으로 교육은 라틴어의 educare에서 유래하였는데, 이는 제 3변화로써 ‘이끌어 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¹⁾ 그러므로 교육은 한 개인 안에 내재되어 있는 능력을 이끌어 내어, 그것을 발전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환언하면 그것은 ‘표현(expression)’이라는 개념을 가진다. 그러나 이 단어는 제 3변화로부터 끌려온 것으로 ‘추출(education)’이라는 의미가 더 가깝다. 또한가치 변화는 제 1변화로서 educare가 있다. 이 단어는 매우 다양한 의미를 가지는데, ‘이끌어 내다’라는 의미보다 ‘기르다, 양육하다’라는 의미를 지닌다. 즉 ‘이끌어 내다, 훈련하다’라기 보다는 ‘음식물을 공급하다, 유지하다, 라는 개념이다.²⁾

1. 기독교 교육(Christian Education)의 개념

①기독교(Christian)

‘Christian’은 어원 구조상, 성경의 용법에 있어서 형용사가 아니라, 명사로 사용되었다.³⁾ 헤르만은 ‘그리스도인’이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한 보다 성경적인 설명으로써,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인간이 된다는 것과 비슷하다고 단언했다. 이는 나의 ‘인간됨’이 내가 하는 모든 일을 특징짓는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내가 하나님의 충실한 종됨이 나는 모든 행위를 특징지어야 한다는 말이다. 결국 ‘나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나를 묘사하는

1) 짐일호이트, 신서균 역, 현대기독교교육,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1, p. 9

2) 이종식, 기독교교육학개론, (서울: 도서출판한글), 1994, p. 13

3) Ibid, p. 24

포괄적인 카테고리이며 방법이 되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맥케인은 'Christian'을 '그리스도의 후예'를 지칭하는 명사로 보았다. 중동 지역에서는 선조들과 일체감을 가지기 위하여, 이름 말미에 'ian'이라는 접미사는 붙이는 것이 보편적인 작명 법이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후예들이라고 알려진 사람들은 부를 때 'Christ-ians'이라고 했던 것이다. 이렇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진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성품을 지닌 자들일 것이다. 그리스도의 성품에는 그가 살았고, 사교했던 모든 방식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그것은 그의 관점으로 사물을 조망하는 것을 의미하며; 그의 가치, 사교, 동기들을 가지고 그가 행동했던 방식대로 행동하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Christian'이라는 말은 창조와 모든 영역에 대한 성경적 이해와,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의 신실한 삶을 의미한다.⁴⁾

②기독교 교육(Christian Education)의 정의

성서는 인간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안경이다. 성경 책장을 넘기면서 우리는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살아계신 구주를 만나고자 한다. 이것이 가능할 수 있는 것은 살아계신 구주를 만나고자 한다. 이것이 가능할 수 있는 것은 성경을 통하여 기록된 말(Words)이 말씀(Word)으로 되어지기 때문이다. 여기서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이다. 그러므로 기독교의 본질은 말씀과 예수를 중심으로 하여 형성된다. 보수주의적 입장에서의 성서관은 더욱 상서의 권위를 높여 준다.⁵⁾ 기독교 교육이란, 세상의 위대한 교육자들의 교육이 많으나 그들보다도 더욱 높으신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고 전능자, 절대자, 전지자의 교육이 무엇인가를 알아내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가치 있는 고등 교육

4)Ibid, p25-26.

5)Ibid, p.33.

이라 하겠다. 신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자기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하신 고로 교육은 인간이 신의 형상을 닮는 노력을 하는 것이 그 근본 원리라고 본다. 그러므로 기독교 교육은 성경에서 볼 때, 그 성격이나 범위가 최고의 신의 세계에까지 도달된다고 본다.⁶⁾

2. 기독교 교육(Christian Education)의 목적

기독교 교육의 목적은 '인간으로 하여금 예수를 구주로 믿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따르며 성서에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살도록 하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 기독교 교육은 신앙고백, 하나님과의 교통, 신앙생활이라는 세 가지를 지향하고 있다.⁷⁾

6)Ibid, p.34.

7) Ibid, p. 49.

II. 중세기의 기독교 교육

1. 시대적 배경

공식적으로 출발은 476년 서방 로마제국이 야만족(게르만족)의 침입에 의하여 멸망된 것을 기점으로 하여 그 기원을 삼는다. 로마 제국의 '쇄퇴와 몰락'은 거시적으로 볼 때 주후 4,5,6세기에 이르는 사이에 있어서 게르만 민족의 서진과 기독교의 개종으로 인한 로마교회와 카톨릭의 분립 그리고 강력한 게르만 민족국가의 형성, 특히 후일에 이르러서는 교회와 국가간의 상속 양권의 대립으로 인한 봉건제도의 성립에서 그 원인을 말할 수 있다. 중세 전체의 시기는 하나의 과도기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중세문화는 3대 문화권에 따라서 분류되고 성격을 형성하였다. 서구의 3대 문화권은 3대 종교에 따라서 분류되고 있다. 즉 로마카톨릭교에 따라 형성된 로마 카톨릭 문화, 비잔틴 문화를 형성시킨 희랍정교회, 그리고 사라센 문화권을 형성시킨 회교에 최고 권위를 두고 있다. 서구에서는 신학이 가장 번영하였고, 교회 건축이 성황 했으며, 학문도 예술도 신학에 종속되고 있었다.⁸⁾ 특히, 중세기에 있어서 주목할만한 것은 고전문학의 전통이 아라비아에서 전해졌으며, 여기에서는 자연 과학, 의학, 수학 등이 비교적 활발하였으며 역사 철학에도 선도적인 역할을 하였고, 후에 문예부흥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2. 사상적 배경

로마의 멸망에 따라 중세의 사상이 출발하게 되었는데 중세기 형성의 요소들은 다음과 같다.

8) 장종철, 기독교 교육역사, (서울: 감리교신학대학교출판부), 1993, p. 203,204.

① 사회가 도덕적으로는 파멸되었다 할지라도 로마 정부나 또는 후에 로마 황제들의 경제, 정치제도는 서방유럽에 계승되었다.

② 게르만(야만족)민족에 의한 개인주의적 봉건제도는 서서히 서구문명의 사회, 정치적, 제도에서 벗어나 일천년 동안을 지나오는 동안 로마의 법률에 의하여 변형되고 말았다.

③ 그리스도 교회는 점차 형식화되면서 위계주의 질서를 형성하였고, 그리스도의 교회는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 가는 것보다는 오히려 율법주의적 종교의 실천을 강조하게 되었고, 주후 1,2세기에 그리스도 교회가 강조해 온 도덕적 의무에 대하여는 점차 무지하게 되었다. 문화의 파멸은 법률과 행정을 혼련시키는 데 소극적이었고, 교육은 교회와 봉사자들을 준비시키는데 등한하게 되었다. 또한 이 시기에는 성직자의 교육에 대하여서도 게을렀으므로 샬레망(Charlemagne)시대에 이르러서는 성직자에 대한 교육이 전혀 실시되지 않았으므로 승려, 성직자 및 감독들은 대체로 교육을 받지 못했으므로 많은 문맹자들이 있을 정도였다. 이러한 시대적인 환경 속에서 탐구의 정신은 형성될 수가 없었고, 사실상 소멸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성직자들과 평신도들 사이에는 무지와 미신이 만연하게 퍼져나갔고 하나님에 대한 예배보다는 성자숭배, 성물숭배 등이 성행하였고 교회의 관리들이 학문적인 정열이나 인도주의적인 봉사에 정성을 기울이기보다는 흔히 술책과 꾀리에 젖어 버리는 것이 당시 교회의 모습이었다.⁹⁾ 또 한가지 원인은 로마교회를 지도한 스킨라 철학자들이 참신한 사상에 그들의 생각을 개방시키지 못하고 오직 진리형성의 방법을 연역적으로만 시도한 데에 있었다. 연역적인 사고 방법은 이성의 활동을 제한시켰고 의미 없는 논쟁만 일삼게 하였다. 그러므로 진리는

9) Ibid, pp. 205-206.

이중적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다시 말해 어떤 것도 오래 지속시킬 힘이 없었다. 그들은 절대 과오가 없는 교회의 진리와 비진리를 구별하였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 중세기 말엽에는 교리가 아리스토텔의 논리학 위에 세워진 것들이었다. 교리는 모든 생각과 이성의 표준으로 고려되었지만 그 교리는 논리학에 의존한 것이었고 이성에 의하여 제시된 진리를 단지 변호해 보려는 것들이었다. 그러므로 이성과 계시의 상호 모순은 그 어느 것도 완전한 표준으로서 지속 될 수가 없었다. 교리에 참된 것은 이성에 참된 것이 될 수 없었고 이성에 참된 것은 교리에 참된 것이 될 수가 없었다. 한 동안 이성이 계시로부터 분리되어짐으로 실험적인 탐구를 조장시켰고 이는 중세기 생활이 현대 생활로 옮겨오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¹⁰⁾

그리고, 교회는 인간의 행동을 조정해 왔을 뿐만 아니라 사상까지 통제해 왔다. 교육은 구원 위의 전제하에서 형성되었으며, 모든 삶의 단계들을 채색시켜 왔다.

스콜라사상의 역사는 주로 계급에 의하여 지배된 세계에서 내면적인 자율성을 보존하기 위하여 변증법적인 도구의 수단으로 싸워온 인간의 역사였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학교의 위치는 계급 안에서 기계적인 결정론에 따라 인간 사고의 내면세계를 통제하였는데 수세기간 ‘암흑’시대를 지켜왔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내리기는 어렵다.¹¹⁾

3. 스콜라주의

스콜라주의는 9세기경부터 14세기초에 이르기까지 중세 학교에서 발달한 사상의 산물로 언급되고 있다. 스콜라주의는 800년에서 877년 사이에 생

10) C. B. Eavey, 기독교교육사, (서울: 한국기독교교육연구원), 1986, p. 174.

11) 장중철, 기독교 교육역사, (서울: 감리교신학대학교출판부), p. 208.

존하여 헬라인과 마찬가지로 헬라어와 사상을 알고 있었던 신비주의적인 아일랜드 사람, 존 스코투스 에리나게(John Scotus Erigena)에 의해 시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¹²⁾ 스콜라주의란 중세의 기독교 교리를 진리로 삼고 이를 전례로 하고 철학적 기초를 확립하고자 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기독교의 신앙과 고대 희랍, 특히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이론을 결합시켜 이것을 신학적으로 완성, 합리화시키자는 사상인 것이다. 환언하면 기독교의 교리에 신학적 체계와 철학적 근거를 부여하고 나아가 지금까지의 기독교의 독단적 신앙을 합리적 신앙으로 전환시켜 기독교의 신앙적 권위를 회복하려는 사상인 것이다.¹³⁾ 또한 스콜라주의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발견이 이루어짐으로써 가능하게 되었다. 이면에서 서양은 이교도들에게 빛을 졌다고 볼 수 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아랍인들을 통해 그들이 작성한 해석과 주석 서들과 함께 전달되었다. 바로 이것이 교회가 이를 발견하였을 때 순간적으로 경악하였고, 파리에서 교황 사절에 의해 이 스타기라인(Stagirite-스타기라는 마케도니아 지방의 도시로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출생지)의 작품들을 금지시킨 이유였다. 실제로 오랜 기간을 두고 이 무제에 관해 학자들 간에는 지적 논쟁이 그치지 않았다. 어떤 이들은 아리스토텔레스주의를 기독교에 상반되는 지적 적수로서 정죄하였다. 어떤 이들은 이 새로운 견해를 아랍인들의 해석과 함께 권위주의적 교리로부터 해방시켜줄 존재로서 환영하고 이를 신학의 대체물로서 받아들였다. 또한 어떤 이들은 기독교적 목적을 위해 이들을 수정하여 수용함으로써 아리스토텔레스주의와 기독교 신학의 종합을 창조하고 이를 통해 가장 뛰어난 스콜라 철학체계를 만들어 내었다.¹⁴⁾

12) 루이스 J. 세릴, 기독교교육의 발생,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4, p. 315.

13) 장종철, 기독교 교육역사, (서울: 삼리교신학대학교출판부), 1993, p. 227.

14) 윌리엄R. 케논,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5, p. 327.

① 스콜라 신학의 발달

“스콜라주의”(Scholasticism)란 낱말은 10세기부터 13세기 기간을 지배한 지적생활과 교육의 형태에 주어진 이름이다. 스콜라주의 사상은 주로 대학을 형성하는데 책임을 다하였고, 이 기간동안 문학과 지식을 혼련하는데 광범위한 역할을 하였다. 스콜라신학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스콜라신학의 목적은 종교적인 교리를 명확한 철학의 표현으로 만드는데 있었다.¹⁵⁾ 이것은 이성으로 신앙을 지지하며, 신앙에 대한 모든 질문에 논의와 토의와 논리적 분석으로 지성적인 답변을 하려는데 있다.¹⁶⁾ 이러한 목적은 전적으로 권위를 상실해 가는 시대에 있어서 신중하고, 자유롭고 또 독립적인 사고를 갖고 있었다. 스콜라 신학은 당시의 교회와 주변 문화를 볼 때 새로운 정신과 사상의 세계를 탄생시키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다. 중세 초기 동안 지배적인 지적생활의 특성은 교회에 대하여는 적대적인 순종의 태도였으나 교회의 모든 교리, 상황, 금지된 사건들에 대하여는 개방적이던 때였다. 교회에 대하여 의심하고 질문을 제기하는 일은 잘못된 일이고 죄악된 것이었다. 10세기경, 새로운 태도는 새로운 표현 속으로 형성해가고 있던 때였다. 이단 사상이 동방으로부터 스며들며 오고 존 스코투스(John Scotus)와 같은 인물들이 계속해서 지적인 도전을 해들어 오던 때였다. 교회의 교리는 오랫동안 형성되어 왔는데 10세기경에 와서는 분석되고, 정의되고, 체계화되었다. 스콜라 신학자들은 그들의 견해를 지적으로 변화되어 가는 시기에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었다. 그들의 이성과 지성적인 역할은 교회를 돕고 지원하는데 활용하였을 뿐 모든 질문이나 의문은 침묵으로 지켜갔다. 이 시기에 있어서, 종교 사상에 지배적인 원리들을 형성하는데 선구적인 역할을 한 사람은 캔터 베리

15) 장종철, Ibid, p. 228.

16) C. B. Evaey, 기독교 교회사, (서울: 한국기독교교육연구원), 1986, p. 155.

의 안셀름(Anselm of Canterbury)이라고 할 수 있다.¹⁷⁾

②스콜라 신학의 영향

스콜라 신학의 가장 큰 영향을 받은 것은 대학이다. 대학은 처음 교수와 학생과의 단체라고 불리어졌고, 교수와 학생과의 자연스러운 회합으로 기원을 갖는다. 대학이란 말은 독립 자치의 연구 단체로 표방하였다. 대학은 교수와 학생으로 조직된 일종의 길드(Guild)가 된 단체로서 자유도시와 항쟁하면서 자치적인 학원을 형성한 것에 중세대학의 특색이 있다. 당시 대학(University)을 특수 연구소(Studium Particulare)와는 다른 의미로 일반 연구소(Studium Generale)라고 부른 것은 누구나 어디에나 모여와도 좋다고 하는 일반적인 것을 강조한 것이다. 이것이 현재의 종합대학(University)의 호칭이 되고, 학생의 합숙소(Collegium)가 현재 단과대학(College)의 명칭이 된 것이다.¹⁸⁾

4. 신비주의

기독교 이전에 신비주의는 있었다. 초기 기독교 문학에서 가장 조직적인 신비주의의 제시는 가짜 디오니소우스에 의하여 만들어진 작품으로 에리게나에 의하여 라틴어로 번역된 것인데 중세기 사상에 심오한 영향을 주었다. 그러나 그것은 기독교 신비주의가 난무하던 12세기까지 존속되지 못하였다. 스콜라주의는 정서와 의지를 희생시키고 이성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신비주의는 정서와 의지를 강조하였고 묵상과 사랑을 통하여 인간의 영혼이 하나님과 연합한다고 믿었다. 신비주의의 방법은 영적인 연합을 이루기 위하여 정신 훈련을 중요시하였다. 정신 훈련의 첫 계단은 외면적 생활의 성결이었

17) 장종철, Ibid, pp. 228-229.

18) Ibid, pp. 238-139.

다. 이 결과 신비주의는 금욕주의 경향으로 흘러갔다. 신비주의는 금욕주의는 아니었지만 자기 부정을 통하여 신적 진리에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그 둘째 계단은 그리스도를 모방함으로써 선행을 행하며 영적 진리에 관한 집중을 통하여 내면적 조명을 받는 것이었다. 그 셋째 계단은 고차원적 생활이나 하나님과의 완전한 연합을 이루기 위한 묵상이었다. 그리고 지식은 신비적 연합을 이루는데 디딤돌로써 유용하며, 신비적 연합은 생각과 묵상과 숙고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 고려하였다. 사색은 외면적 세계에서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이요 묵상은 내면 세계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며 숙고하는 영혼이 하나님과 연합케 하는 것으로 간주하였다.¹⁹⁾ 스킨라주의와 신비주의는 양자가 처음에는 상이한 것처럼 보였지만, 동일한 목적을 가지 것이고, 각각의 하나님은 마음 혹은 지성에 의해서 추구되었다. 그리고 신비주의의 문제점에 관하여 지고한 신비적 경험 속에서 영혼은 하나님을 “명상하는 것”으로 언급되어 있다. 명상이라는 말은 신비주의자들의 어휘에서 볼 때 기술적인 언어이다. 신비주의자들은 지성, 의지, 그리고 사랑의 정확한 기능에 관하여 그들 가운데서도 일치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신비적 경험에서 영혼이 마음 혹은 지성이 하나님과 직접적인 관계에 있다는 의미에서 “여정의 종말”에 도달한다는 확신에는 일치하고 있다.²⁰⁾

5. 종교교육의 배경

기독교교육의 역사 이행에 있어서 종교개혁기의 연구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종교개혁은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오는 대전환기였다. 16세기에 있었던 종교개혁 기라고 부르게 되는 시기는 15세기의 마지막 시기와 16세기의

19) C. B. Eavey, pp. 164-165

20) 루이스 J. 셰릴, Ibid, p. 324

자작을 배경으로 한 중세기 종말의 때였다.²¹⁾

첫째, 15세기의 마지막 때에 있었던 위대한 변화의 사건들은 무엇보다도 먼저 1492년 콜럼부스(Columbus)에 의한 아메리카 신대륙의 발견을 출발점으로 들 수 있다. 신대륙의 발견은 전통적인 사고와 상징들을 무너뜨리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둘째, 15세기가 나고 16세기가 시작될 무렵에 또 하나의 획기적인 변화는 정치적 현상으로 볼 때 중세기의 봉건주의가 무너지고 근세 국가의 탄생을 지향할 수 있었다. 셋째, 경제적인 불만이 개혁의 중요한 요인이었다. 이 시기에 사회와 종교생활의 양상은 교회의 지배 아래 있었기 때문에 경제력이 좌우되고 있었다. 교회는 자선행위를 하므로써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과 돈을 지불함으로써 죄를 면제받을 수 있으며, 사제의 미사 행위로 연옥에 지체하는 기간이 단축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쳤다. 따라서 속죄를 위한 헌금과, 십일조가 교회의 창고를 채웠고, 이러한 재력으로 교회를 건축하였다. 돈은 계속해서 로마 교황청으로 흘러들어 갔으며 각처의 농민생활은 점점 비참하게 되었다. 군주들은 평민들을 탄압했고 무지와 미신이 평민들의 생활 속에 만연해 갔다. 이렇게 되자 북유럽에 있는 평민들은 교회의 요구에 대항하여 싸울 준비를 하고 있었다. 또한 당시 교회는 부패하여 자신의 영광만을 추구해 가는 처지에 있었다. 넷째, 종교개혁은 서서히 일어났다. 13세기 말부터 로마 카톨릭교회의 통치에 저항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 이 시기에 로마카톨릭교회는 타락하고 영적 생활이 저하되고 있었다. 따라서 억압받던 많은 사람들이 대항하여 일어나게 되자 로마 카톨릭교회는 교회에 반대하는 자들을 교회의 권위로 이단이라고 규정하고 탄압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연합하여 교회에 대항하였다. 마침내 공동생활형제단(The Brethren of the

21) 장종철, Ibid, p. 215

Commen Life)이 일어나서 영적 생활과 기독교교육을 통하여 종교개혁을 주도해 가고 있었다. 다섯째, 종교개혁에 가장 중요한 공헌을 한 요인은 1450년 구텐베르크(Gutenberg)에 의한 인쇄수의 발명이다. 활자체에 의한 인쇄술의 발명은 인문주의 운동에 박차를 가했다. 그때까지만 해도 인쇄는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을 뿐이었다. 따라서 옮겨 쓴 사본은 항상 옮겨 쓰는 긴 과정에서 원본에 대한 충실도가 항상 문제시되었다. 그러나 많은 노력으로 저렴한 가격에 대량의 동일한 사본들을 생산해 낼 수 있는 수단이 발명됨으로써 상황은 일대 전환기를 맞게 되었다. 이러한 시대적 발전에 따라서 많은 선구적 인문주의자들은 필사본들을 대조 연구하는데 정열을 쏟았으며, 성경과 교부들의 글 뿐아니라 고전기록들에 대한 비평 판들을 생산해 내는데 심혈을 기울였다.²²⁾

6. 에라스무스와 인문주의 교육

에라스무스는 인문주의자이며 가장 보편적인 입장을 갖고 “기독교의 근원”으로 돌아가자고 외쳤던 사람은 에라스무스였다. 그는 학자요, 인문주의 운동의 지도자였다. 그는 전시대를 통하여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문주의자이며 교육자로서 기독교교육을 새롭게 강조한 사람이었다. 그의 목적은 기독교신학에 근원적 자료를 대중화시키고, 또한 많은 인문주의자들에게도 고전의 근원적인 자료를 보급시키려는데 있었다.²³⁾

22) 장종철, Ibid, pp. 246-248

23) 장종철, Ibid, p. 250

Ⅲ. 칼빈주의 기독교 교육

1. 칼빈의 생애

중세기 기독교회의 권위아래 있던 유럽에서는 이태리를 중심 하여 문예 부흥 운동이 새롭게 일어나게 되었다. 사실상 이러한 운동은 성경을 보는 안목을 변화시켰고 인간을 재발견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때, 즉 15세기 후반에 걸쳐서 전 인류와 교회에 위대한 영향을 끼친 인물들이 배출되었다. 그들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종교 개혁자 루터(M. Luther, 1483)라든가, 멜랑톤(Melancton, 1497), 에라스무스(D.Erasmus, 1466), 쾰빙글리(H. Zwingli, 1484) 등을 들 수 있다. 이들을 따라 한 위대한 인물이 세상에 햇빛을 보게 되었는데 그가 바로 칼빈(J. Calvin;1509.7.10-1564.5.27)이다. 칼빈은 본래 프랑스 북쪽 피카르디(Picardy)지방에 있는 노욘(Noyon) 이라는 한 작은 마을에서 제랄 코반(Gerard Cauvin)의 넷째 아들로 태어났다. 그의 어머니는 아주 신앙심이 깊은 정숙하고도 겸손한 여성이었다. 칼빈에게는 본래 다섯 형제가 있었으나 세 형은 일찍이 다 죽고, 동생인 인트와느를 낳은지 얼마 안되어 사랑하는 어머니마저 죽고 말았다. 이때 칼빈은 세 살 난 어린아이였다. 그렇게 됨으로 아버지 제랄은 재혼하게 되었으며 그 여자의 몸에서 두 딸을 얻게 되었다. 칼빈의 아버지는 한 교구의 주교인 비서로 일하게되었다. 그래서 칼빈은 생활에 어려움은 맛보지 아니했을 뿐 아니라 상류 계급에 속하는 자녀들과 접촉하며 자랄 수 있었다. 그리고 귀족의 자녀들과 같이 가정교사에게 교육을 받으며 그들이 다니던 카펫대학(College de Capetles)에도 다니게 되었다. 칼빈은 몸이 좀 약한 편이기는 했으나 정확한 이해력과 뛰어난 지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그의 이름이 코반에서 칼빈으로 비뀐 것은

1523년 파리에 있는 말슈대학에 입학하면서부터이다. 그 당시 입학원서를 제출 할 때에 그의 이름을 라틴어화 하여 칼비누스(Calvinus)라 하였고 그후 다시 칼빈이라고 고치게 되었다. 그는 말슈대학에서 라틴어를 배우다가 수개월후 친구들과 같이 몽태규대학(College de Montaigu)으로 전학을 했으며, 그는 여기서 많은 양의 책을 읽게 되었고, 라틴어도 통달했다. 그후 칼빈은 다시 아버지의 뜻에 따라 올레안대학에 가서 법학을 공부하기 시작했다. 특히 칼빈은 올레안대학에서 루터의 개혁정신에 많은 영향을 받은 볼마르(Melchior Wolmar)에게 희랍어를 배우게 됨으로 후에 그가 활동하는데 꼭 필요한 무기를 가지게 되었다. 그러던 중 1531년 5월 26일 아버지가 병으로 세상을 떠나게 됨으로 고향인 노른에 내려가 장례식을 마치고 다시 파리로 돌아와 와실대학(College of Royal Cefcures)에서 희랍어와 히브리어를 공부했다.²⁴⁾ 그후 칼빈은 올레안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개혁의 길을 닦기 시

24) 김하진, 주제별칼빈주의, (서울: 한국문서선교회), 1995, pp. 11-13.

멜랑톤(Philipp Melancthon ; 1497-1560)독일의 인문주의자이며 종교개혁자.

- 1.사상:①성경의 권위 ②예전은 성례와 성찬 ③예수가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심을 확신
- 2.저서: 신학개요(Loci)-프로테스탄트의 첫 교의학 저서
- 3.공헌: ①독일의 인문주의를 프로테스탄트로 방향 전환시킴.
②신앙 고백적 진술을 작성하여 종교교육에 크게 이바지함.
③신학개요(Loci)저술 통하여 '아우그스부르크 신앙고백'의 기초 마련.

에라스무스(Desiderius Erasmus ; 1466.10.26-1536.7.12)네덜란드의 인문주의자, 고전 및 교부학 학자. 최초의 희랍어역 신약편집자.

- 1.사상:①수도원 생활에 염증을 느끼고 개인적인 자유 열망.
②스콜라주의적 신학이나, 설교에 무관심.
- 2.저서:①제롬(Jerome) 전집 9권
②전집-키프리아누스(1520), 힐라리우스(1523), 이레나이우스(라틴역 1526), 암브로시우스(1527), 바실리우스(1528), 오리게네스(라틴역, 1536)
- 3.공헌: 네덜란드에서 신약을 처음으로 희랍어로 발행.

작했다. 칼빈은 기독교인문주의자요, 제네바의 개혁자이며, 교육자요, 종교개혁 형성기에 있어서 개혁신학을 형성한 최대의 지적 조직가이다.²⁵⁾ 그는 제네바에서 전 시민을 기독교적으로 교육하고 악을 제거하여 시민을 바른 길로 이끌기 위해 교회적 훈련, 신앙문답서, 기독교 강요 등을 제정²⁶⁾하여 교육에 주력하였다.

2. 칼빈의 사상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칼빈의 중심사상이 예정론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나 그보다 앞선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것이다. 이것이 칼빈이 가졌던 중심사상이라 하겠다. 물론 예정론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교리임에는 틀림이 없다. 그러므로 칼빈주의자들은 모든 사물에 있어서 하나님의 손길이 닿고 있음을 보고 있다. 그래서 칼빈은 그의 『기독교 강요』에서 하나님의 위치를 제일 먼저, 그리고 중심에다 두고 하나님의 임재를 역설하고 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주권은 교회에만 아니고 불신 세계 각 분야 즉 자연계, 정치계, 문화계, 교육계 전반의 문화에서 자리잡고 있다고 믿는다.²⁷⁾ 종교개혁자들의 신학사상을 연구한 로버트 존슨(Robert Johnson)

쯔빙글리(Ulrich Zwingli ; 1484-1531)

- 1.공헌:①이신득의 ②만인제사장주의 ③성경의 권위 ④성만찬 기념설 ⑤교회와 국가는 민주헌법, 교권배격.
- 2.저서:①음식에 있어서 선택과 자유에 관하여-자신의 최초의 종교개혁 소책자
②Der Hirt ③Commentary on the True and False Religion
④Confession of Faith
- 3.공헌:①로마 카톨릭교회에 대한 67개조 논제 발표하여 예배의식의 근본적인 개혁 노력
②칼빈과 함께 스위스의 종교 개혁자.

25) 장종철, Ibid, p. 282.

26) 장종철, Ibid, p. 286.

27) 김하진, Ibid, p. 17.

은 마틴 루터와 존 칼빈의 사상을 특징적으로 설명하면서 루터보다 칼빈은 복잡한 사상을 좀더 체계적으로 만들었고 신학보다는 교육에 더 역점을 둔 사상가이며 실천가였다고 지적한다. 두 신학자는 어떻게 인간이 죄로부터 해방되느냐 하는 문제에 있어 속죄론에 근거하여 해석하고 있다. 양자의 차이점을 볼 때 루터는 하나님의 의를 통한 구원을 더욱 강조하고 있으며, 칼빈은 인간을 유한한 존재이며 우상숭배하는 죄인인 죄된 존재라고 규정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회복을 통해서만 인간은 구속될 수 있다고 본다. 칼빈의 사상에서 율법과 복음은 서로 달리 역할을 하는데 교육의 기능은 율법의 기능과 같다. 율법은 인간의 죄를 볼 수 있는 거울이며, 인간의 타락한 본성을 가르쳐서 복음으로 안내한다. 이 역할은 인간이 율법의 선행을 통해서 이룩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값없이 거저 주시는 죄의 용서를 통해서만 이룩된다. 그리스도인은 항상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소외된 의 가운데 있는 세상과의 긴장 속에 살고 있으며, 하나님의 나라와 율법의 저주 아래 놓여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칼빈은 인간이 죄인임을 알고 하나님을 통해서만 구원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도록 가르치는 것이 교회교육의 역할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율법과 복음은 서로 모순되는 것이 아니다. 율법은 선택된 자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안내하시며 은혜롭게 돌보신다는 징표이다. 교육의 목적은 타락 이후에 나타난 우연성에 기초하고 있는 것이다. 선택된 자를 위하여 율법은 인간을 순종으로 안내하여 본래적인 기능을 하도록 한다. 여기서 제 3의 방법이 있는데 이것이 칼빈신학의 핵심이다. 따라서 칼빈은 교육기관을 만들고 교회와 제네바 시민을 교육시키기 위하여 교회가 교육목회를 통하여 이룩할 수 있는 교육제도를 만들었다. 칼빈은 교육제도와 교육직무를 만

들고 그 실천에 헌신을 다했다.²⁸⁾

주의는, 하나의 정신적이며 영적인 개혁이었다. 칼빈주의를 전통과 한계를 추월하는 하나의 관념이나 생각으로만 볼 수는 없는 것이다. 칼빈주의의 기본 사상은 칼빈의 저서 『기독교 강요』(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에서 표현되어 있다. 칼빈주의의 교육적 이론과 실재를 규정하는 칼빈의 사상은 다음과 같다.

하나님의 절대주권, 하나님은 출생부터 영원한 구원이 아니며 영원한 유품에로의 예정,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하는 인간의 책임,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구원, 인간의 전적부패, 본성적 인간 경향을 억압할 도덕적, 영적 생활의 필요성 등이다. 칼뱅은 지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하여 교회와 국가와 가정이 하나님의 기관으로 통합되어짐이 요구되는데 이는 하나님의 절대주권 하에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고려하였다.²⁹⁾

<참조>칼빈의 5대교리

①무조건 선택 또는 특별 예정(Unconditional Election or Particular Predestination) ②단지 선택된 자들만 위한 제한적 구속(Limited Atonement) ③자연적 무능력 또는 전적 타락(Natural inability or Total Depravity) ④불가항력적 은총 또는 유효한 하나님의 부름심(Irresistible Grace or Effectual Calling) -- 하나님께로부터 은총을 부여받은 인간은 구원을 받는다. 그는 은총을 거부할 수 없다. ⑤최종적 견인 --무조건적인 영원한 구원의 보증(Final Perseverance)³⁰⁾

28) 장종철, Ibid, pp. 289-291.

29) C. B. Reavey, Ibid, p219.

30) 밀드레드 와인콕, 칼빈주의와 웨슬레신학, (서울: 생명의말씀사), 1996, p. 58.

칼빈주의는, 신학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을 포괄하는 사상 체계이다. 그 사상 범위에 신학과 동시에 모든 사람에 분야도 포함된다. 이 사상 체계는 인생관 세계관을 제공하는 것으로 사실상 지금까지 인간에게 제공된 몇몇 기본적 사상 체계들 가운데 하나로 간주된다. 제임스 올(James Orr)은 근본적인 철학체계를 열 두개로 제한하고 기타의 체계들은 이들에 대한 변체들로 고려하였다. 아브라함 카이퍼(Abraham Kuyper)박사는 그것을 다만 네 개로 축소하고 그 넷 가운데서 하나가 칼빈주의라고 칭하였다.³¹⁾

3. 칼빈주의의 정의

우리는 흔히 장로교가 믿고 있는 신학적인 체계를 칼빈주의와 결부시켜 말하고 있다. 그렇다면 도대체 칼빈주의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칼빈주의란 주로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특별히 취급한 하나의 포괄적인 신학적 체계인데, 이것을 칼빈이 종합했기 때문에 그의 이름을 따라 한마디로 칼빈주의라 부르는 것이다. 다시 말해 칼빈이 처음으로 종합적인 신학의 토대 세웠고, 또 그것을 성경적으로 알기 쉽게 그리고 자세하게 설명한 것이다. 그래서 칼빈주의의 강조점은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아멘”(롬11:36) 하신 성경 말씀에 근거하고 있다. 여기서 칼빈주의의 근본원리를 찾을 수 있고 또 칼빈주의가 하나님의 교회를 근본적으로 취급하고 있음을 잘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참된 칼빈주의자는 언제나 그 사상의 중심이 하나님과 더불어 시작하며, 경건하게 살려는 노력을 기도하면서 계속하는 자라야 하겠다. 워필드

31) 헨리미터, 칼빈주의, (서울: 개혁주의신생협회), 1994, p. 14.

(B. B. Warfield, 1851-1921)박사는 칼빈주의의 원리에 대하여 좀더 구체적인 대답을 주고 있다. “칼빈주의자는 모든 현상 배후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인식하고, 발생하는 모든 일에서 그의 뜻을 행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사람이다. 그리고 기도하는 중에 자신의 영적 모습을 가꾸어 가는 사람이다. 칼빈주의자는 오직 자신의 힘으로 구속하지 못할 줄 알아 온전히 자신을 하나님의 은혜만 맡기는 자를 말한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는 말하기를 “칼빈주의자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볼 때 자신은 죄인이요, 피조물로서 자신이 무가치함을 느끼며, 그러나 하나님은 죄인을 용납하시고 받아들이는 분이심을 믿고 그에게 나아가는 사람이다. 칼빈주의자는 자신의 공로를 만들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믿는다. 그러므로 자신의 사상이나 감정이나 사고방식에서 하나님을 참으로 자기의 하나님으로 확신한다. 특히 생활 활동의 모든 범위에서 즉 지적, 도덕적, 영적 생활에서 그리고 개인적, 사회적, 종교적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이 자신의 하나님이 되도록 결심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칼빈주의의 체계를 단순히 칼빈의 철학만으로 생각하는 것은 큰 잘못이다. 칼빈주의자들은 자신을 칼빈 한 사람의 추종자로 생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칼빈도 단지 한 사람의 성도일 뿐이라고 생각한다. 칼빈주의자는 인간의 철학은 배격하고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하나님과 인간에 대한 그의 관계를 선포하고 그것을 찾고자 노력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칼빈은 성경주석을 많이 썼고 이 성경 영향을 끼치는 훌륭한 그의 유산이 되었다. 칼빈주의자들은 칼빈과 위대한 인물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한다. 그러나 칼빈이 말한 것이나 기록한 의견을 칼빈주의 영감된 교리로 받아들이지는 않는다. 단지 칼빈이 놀라운 교리들을 하나의 체계를 세워 타락한 인간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밝히 설명하는 데 큰 도움을 주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칼빈주의는 완전 예정을

믿으며 구원론적, 신론적, 인간론적, 교회론적인 면에 있어서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하는 것이므로, 칼빈주의를 어떤 새로운 종교 개혁신학이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 교부들의 신학 특히 어거스틴(Augustine)의 신학이 칼빈의 신학으로 인하여 약화되었다거나 바뀌어진 것도 아니다 다만 칼빈은 교부들이 가르친 주요 교리들을 분명히 하고 있을 뿐아니라, 그것들을 구별하여 그들의 교리가 성경에 가장 가까운 것임을 보여주려고 노력했던 것이다. 그러나 칼빈은 교부들이 개인적으로 주장한 비성경적인 개념은 결코 따르지 않았다. 칼빈주의자들은 무턱대고 어떤 사람을 따르는 것을 거부한다. 심지어 칼빈이라 할지라도 성경의 확증이 없다면 이를 따르지 않는다. 성경이 가는 곳까지 칼빈주의자는 가며, 성경이 멈추라는 곳에서 그들은 멈춘다. 성경이 말하는 것만 말하며, 성경이 침묵하는 것은 그들도 침묵한다. 그러므로 칼빈주의자는 성경을 강해하는 강해자이며 주석가일 뿐이다. 그래서 칼빈주의자들은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나이다”(렘10:23)라는 성경말씀을 현실생활에서 확증해 나가는 것이다. 하나님만 모든 인생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시다.(잠3:5-6) 칼빈주의는 성경에서 중심교리를 찾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과 영광, 효과 있는 선택과 부르심, 구원과 보호하심, 하나님의 주권 등을 분명하게 강조한다. 이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로마서 8:29-30에서 분명히 밝히고 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10:3, 26-29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냄이니라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시매 아무도 아버지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이와 같은 말씀은 하나님의 선택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정을 포함한다. 예정론은 칼빈주의 중심교리는 아니다. 예정은 언제나 사람과 상관되고 사람에게 될 일을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칼빈주의자에게 첫째가는 관심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사상이다. 하나님은 오류가 없는 완전하신 안내자이며, 무오의 성경은 인간을 모든 진리와 경건함으로 인도하는 방편이다. 가정, 교회와 국가의 일이나 종교, 정치, 경제, 교육 등의 모든 영역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을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서 행하는 것이다. 칼빈주의자는 자신을 볼 때 자신의 가르침에 따라서 행하는 것이다. 칼빈주의자는 자신을 볼 때 자신의 공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인 신앙을 통하여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죄인임을 깨닫는다. “모든 성경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 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취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나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엡3:8-11)

그래서 구원 계획은 하나님의 단독적인 사역으로, 구원의 공덕을 오직 하나님께만 돌리는 하나님의 전적인 계획으로 생각한다. 구원에 관해서는 인간에

게 돌아갈 영광이나 혹은 반영된 영광도 없다.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에게 오셔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새로운 의지를 하신 것이다.³²⁾

4. 칼빈주의 입장에서 본 교육관

칼빈주의는 현대 교육에 지대한 공헌을 이룩해 놓았다. 다시 말하면 현대교육의 초석이 되었다고 할까? 칼빈주의의 영향이 프로테스탄트의 종교 교육으로 끝난 것이 아니다. 근대 전신의 지주를 이루는 포괄적 사상 체계로서 교육을 포함한 모든 문화면에 영향을 끼쳐왔던 칼빈이 교육에 관한 문제를 가지고 책을 쓴 것은 없으나, 그의 교육 목적이나 학교 교육의 중요성, 조직 등은 「기독교 강요」를 위시한 그의 여러 책에서 잘 나타나 있다.³³⁾

①교육의 기초

칼빈주의 교육의 기초는 하나님의 말씀인 신. 구약이다. 성경은 계시된 말씀이다. 칼빈주의는 성경의 기본적 권위를 인간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다 인정한다. 마찬가지로 교육의 영역에서도 이것이 분명히 표현되었다. 성경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이므로 기독교 교리나, 도덕 생활이나, 인간 교육의 모든 면에서 절대적이며 최종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다.³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딤후3:16-17)

32) 김하진, Ibid, pp. 18-22.

33) 김하진, Ibid, p. 205.

34) 김하진, Ibid, p. 206.

②교육의 대상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 중에 사람이 참된 의미에서 유일한 교육의 대상이다. 왜냐하면 사람은 나면서부터 부족한 상태로 태어나기 때문이다. 교육이란 채워주는 과정이라 하겠다. 부족한 상태의 인간이 교육이란 과정을 통해서 부족한 부분이 채워지는 것이다. 사람은 어릴 때뿐만 아니라 일평생을 통해서, 즉 그의 전 생애가 교육을 받는 과정이다. 물론 동물이나 식물도 어느 정도 훈련 과정을 통해서 약간의 발전과 개선이 있을 수 있으나 그것들이 교육의 대상이라고는 할 수 없다. 칼빈주의는 교육의 대상인 사람이 지녀야 할 지식을 몇 가지로 말하고 있다.

첫째, 사람은 하나님의 지으심으로 받은 존재이다.

둘째, 피조물인 사람이 불순종함으로 범죄 하였다는 사실이다.

셋째, 이렇게 비참한 인간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적인 요소를 남겨 두었다.

넷째, 그런 인간에게 독생자를 보내 희생 제물이 되게 하심으로, 그를 믿는 자에게는 구원을 얻게 하신다는 사실이다.³⁵⁾ 인간은 이러한 교육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격을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인간은 상실된 인간성의 회복을 위하여 교육을 받아야만 한다.

③교육의 목적

칼빈주의 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은 사람으로 하여금 올바른 크리스찬으로서의 생활을 하도록 발전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 인간이 하나님의

35) 김하진, Ibid, p. 207.

영광을 위해 살도록 하는데 칼빈주의 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

칼빈이 작성한 제네바의 교육 프로그램에는 일반 인문교육도 종교 교육과 같이 중요하다는 것을 밝힌 점이 특이할만 하다. 일반 인문교육의 목적도 종교교육의 과목만큼 중요시되고 인문교육을 잘 받으므로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다고 하겠다.³⁶⁾ 생명력이 있는 기독교 신앙과 분리된 “기독교” 교육은 단지 가벼운 소리를 내는 금관 악기에 불과하며 아무런 감동을 주지 않는 울리는 팽과리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 일반화되었다. 이 두 가지, 즉 하나님이 함께 연합하셨고 그러나 인간이 종종 분리하기를 추구하였던 기독교 신앙과 그리고 기독교 교육은 역사에 의하여 긴밀한 결합으로 등장하게 되었다.³⁷⁾ 그러나 이 두 교육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고 강조한다.

④교육의 내용

칼빈주의 교육의 내용은 두 가지로 구분한다. 하나는 하나님께 관한 지식이고, 다른 하나는 사람에게 관한 지식이다.

첫째, 하나님께 관한 지식은 단순히 하나님이라는 분이 존재하신다는 것을 아는 것으로 마치는 것이 아니다. 그의 영광과 우리의 축복을 위해서 그와 친밀히 교제하는 지식을 가진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그를 알만한 지식을 주셨으나 그것은 파괴되고 어두워졌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을 추월해서 초자연적인 계시인 성경을 주시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로 알도록 하셨다.

둘째, 사람에게 관한 지식은 하나님께 관한 지식에 그거 한다. 사람이 거울을

36) 김하진, Ibid, p. 208.

37) 루이스 조셉 세릴, 기독교 교육의 발생,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4, p. 15.

통해서 자기 얼굴을 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관한 지식에 비추어서 사람을 알 수 있다는 것이다.³⁸⁾

(5) 교육의 방법

칼빈주의 교육의 방법도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 창조주 하나님께서 불완전한 불결한 사람을 완전하고 거룩한 자리로 인도하시는 그 방법을 배우고 따르는 것이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인간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성부 하나님은 설계하시고, 성자 하나님은 땅위에 오셔서 죽음으로 구속 사업을 이룩하시고, 성령께서는 택한 백성을 감화 감동하시어 회개케 하여 믿고 순종하며 살도록 하신다. 다시 말하면 구속을 이룩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 교육하는 방법이다. 둘째, 각자의 마음에 내재하시고 진리대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바지하도록 하는 방법인데, 이것은 개인적 신앙과 자기 희망의 열매를 가져오게 된다.³⁹⁾ 다른 한가지 방법은 종교 교육의 목적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교회와 가정이 연합해야 한다. 일반교육은 학교에서 체계적인 순서대로 가정에서 책『적인 순서에 따라 공부를 한다. 그러나 기독교 교육은 그렇지 못하는 것이 사회적 현실이다. 이 교육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일반교육도 시켜야 하지만, 기독교 교육을 위해 가정에서 부모들이 열심히 교육시켜야 한다. 종교개혁기에는 부모들은 그들의 자녀를 기독교 진리로 가르쳐야 했고, 자녀의 참된 경건을 신장시키며 그들로 하여금 정규적으로 교회에 봉사하도록 교육해야만 한다. 당시 부모들은 이 책임을 수행하였으며 이 교육적 책임을 소홀히 한 부모들은 종교법원에 의하여 견책을 당하였다. 도회지와 시골 등지에 기독교 교리에 기초한 청소년 교육 기관이 세워졌고 이 학교들은 개혁주의 교회의 회원인

38) 김하진, Ibid, pp. 208-209.

39) 김하진, Ibid, p. 209.

찬 훈련반은 교사들로 하여금 모든 아동들을 교육하도록 하였다. 특히 신앙과 행동과 경건을 강력하게 훈련시켰다.⁴⁰⁾

5. 교회의 교육적 사역

칼빈에게 있어서 교회의 교육적 사역은 교회의 일반적인 능력과 권위에 기초하고 있으며 또한 교회가 사용하고 있는 신학의 기본적 주제에 근거하고 있다. 칼빈은 교회의 교육적 사역을 두 가지 과제로 사용하고 있다. 신앙의 신조들을 사용하는 권위와 이러한 신조들을 해석하는 권위이다. 이러한 과제는 교육적 사역의 역사적 기능에 근거하고 있다. 즉,

- ①교회의 규범적 신조와 실천을 결정하는 것
- ②이러한 신조와 실천을 문화와 역사적 상황에 적용시키고 재해석하는 것
- ③적절한 교육제도, 교육과정, 그리고 새로운 세대를 가르치고 신앙으로 성숙시키는데 도움을 주는 자료들을 형성하는 것이다. 칼빈은 이러한 과제들을 그의 사상과 실천으로 옮기도록 하였다. 칼빈은 이러한 교회의 교육적 사역을 위해서는 교회의 가장 중요한 책임은 교사라고 하였다. 그의 작품 속에서 칼빈은 교회의 가장 중요한 형상은 양육과 교육에 도움을 주는 일에 초점을 두고 있다. 교회의 교육적 사역은 교회가 인간, 특히 선택된 인간들에 대한 하나님의 교정을 서술하는 것을 중요한 핵심으로 하며 그 중심 형태로서 교수 학습을 말하고 있다.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교수 학습을 서술하고 있는데, 신인관계에서 “학생,” “교수,” “교사,” “교육한다” 또는 “선생” 등이란 낱말은 별로 사용하고 있지 않다. 하나님은 하나의 교사 같이 표현되고 있으며, 적절한 능력으로

40) C. B. Eavey, 기독교교육사, (서울: 한국기독교교육연구원), 1986, p. 227.

학생들과의 통화 등을 설명함으로써 창조의 수단을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자식에 대한 적절한 인간적 태도를 “교육성”의 하나로 말할 수 있다. 마음과 정신을 모두 다 해서 인간은 하나님의 교육에 의존해야 할 것을 인지시켜 주고 있다. 이러한 비유의 형태에서 칼빈은 때때로 교회의 본질을 설명하면서 교수 학습의 형태로 사용하고 있다. 칼빈은 교회를 어머니에 비유하여 설명해 주고 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머니가 없이는 모태 안에 잉태할 수 없으며, 어머니의 가슴에 양육될 수도 없으며, 어머니의 돌보심이 없다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래서 어머니는 천사와 같은 것이다.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교회의 가르치는 기능을 서술하면서 “우리는 약점을 소홀히 하지 않고 학교에서 실족하지 않도록 우리 모두의 학생들에게까지 내버려두지 않으셨다”고 표현한다. 교회는 복음의 “영적 양식”과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할 수 있는 교회의 필요성을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해서 선택된 사에게 은혜의 수단으로 교사를 임명한다. 교회는 선택받은 자들의 교사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교회기관을 통해서 그 선택받은 자들을 가르치시고 그들의 결핍과 능력을 도와주시기 때문이다. 여러 가지 면으로 볼 때 칼빈은 교회를 가르치는 직무를 가진 것으로 사용하였고 제도를 만들었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는 교회의 교육적 사역을 위한 제도로서 목사의 역할, 박사, 협의회, 전통 그리고 교육적 기능에 대한 양심 등에 대하여 서술하고 있다. 이러한 교회의 교육적 직무를 위하여 「기독교 강요」에서는 안수 받은 목사와 교회의 협의회 등에 대한 제도를 심도하게 논의하고 있다.⁴¹⁾

41) 장종철, Ibid, pp. 296-298.

6. 칼빈주의 목회원리

우리는 칼빈을 종교개혁가요, 신학자요, 성경주석가요, 교회조직가요, 설교자요, 목회자라고 부른다. 칼빈에 있어서 두드러지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 사상이다. 곧 하나님 중심사상이다. 이 사상이 칼빈의 모든 사상과 목회의 바탕이 되었다. 칼빈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 경외와 하나님의 영광으로 자기 생애를 이어가고 있었던 분이였다.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칼빈은 언제나 자기는 미천하고 아무 것도 아닌 무가치한 자로 자처하였다. 그는 자서전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회심의 날자를 우리는 전혀 알지 못하고, 다만 시편 주석의 서문에 나타난 사실을 보고 그의 회심을 추측할 뿐이다. 죽을 때에도 자신의 무덤에 묘비를 세우지 말라고 하였다. 이만큼 칼빈은 자신을 나타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기 위해서 살았던 하나님의 귀한 종이였다.⁴²⁾ 그러면 칼빈의 목회원리를 넷으로 생각해 보자.

① 칼빈의 강조점은 말씀의 순수한 전파였다. 하나님의 말씀이 순수하게 전파되고, 성례가 바로 시행되는 곳이라면 거기에 하나님의 교회가 존재한다고 칼빈은 주장하였다.⁴³⁾ 말씀의 사역과 성례의 사역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으로 참된 교회를 식별하는 표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을 칼빈은 여러 번 강조하였다.⁴⁴⁾ 다소 도덕적인 결함이나 병폐가 있다. 하더라도 이 두 사역이 존재하기만 하면, 거기에 교회가 있고, 교회라는 명칭이 사용될 수 있다. 주요교리나 신조를 손상시키거나 파괴하지 않는 한,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성례의 합법적인 제도를 폐지하거나 허물지 않는 한, 사소한 잘못들은

42) 신복윤, 칼빈의 신학 사상, (서울: 성광문화사), 1993, p. 258.

43) 신복윤, Ibid, p. 259.

44) 존 칼빈, 「기독교 강요IV. 1, 9.」, (서울: 생명의말씀사), 1996, p. 22.

마땅히 용서받아야 한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핵심 속에 거짓이 침투하거나, 교리의 뿌리가 붕괴된다면 목이나 심장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은 사람의 생명이 끝나는 것처럼, 교회는 즉시 파멸하게 될 것이다. 만일 선지자와 사도의 교훈이 교회의 기초를 이룬다면, 그 교훈이 제거되었을 때, 그 건물은 어떻게 존립할 수가 있겠는가? 교회를 지탱하는 요강이 무너지면 교회는 필연적으로 붕괴되고 말 것이다. 그리고 참된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딤후3:15)라고 한다면, 기만과 허위가 지배하고 있는 곳에 교회가 존재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⁴⁵⁾ 이렇게 칼빈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강조하고 성경을 사랑했다. 그래서 사람들은 칼빈을 “성경의 사람,” 혹은 “한 책의 사람”이라고 불렀다. 칼빈에 의하면 교회의 사명은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을 이해시키는 일이라고 하였다. 그래서 그는 성경의 내용을 잘 이해시키고, 성경을 정확하게 해석하고, 성경 말씀을 실제 생활에 적용시키려고 노력하였던 것이다.⁴⁶⁾ 성경은 인간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울이며, 하나님 자신을 보여 주는 보다 나은 저력자이다. 현상계에서 하나님은 자신을 명백하게 계시하였으나, 한편 인간을 창조주 하나님 앞으로 올바르게 인도 할 수 있는 보다 나은 조력자를 주셨는데, 그것은 성경이다.⁴⁷⁾ 하나님은 자신을 알려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친히 말씀의 빛을 더 하여 주셨으며, 또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더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자 하는 자들에게 이 특권을 주신 것이다. 이 성경은 유대민족들로 하여금 미로에 빠지지 않도록 보호해 주었으며, 오늘날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대한 순수한 지식을 유지하게 한다. 칼빈은 이 성경이 인간의 미련하고 둔감함을 쫓아버린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하여 안

45) Ibid, p. 45.

46) 신복윤, Ibid, p. 259-260.

47) 존 칼빈, I. 6, Ibid, p. 127.

경의 예를 든다.⁴⁸⁾ “노인이나 시력이 약한 자들은 아무리 아름다운 책을 펴 놓는다 하더라도 그 속에 무슨 글이 기록되어 있는 책으로는 느낄는지 모르나 거의 두 글자도 읽어 내려 갈 수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안경을 쓰고 보면 그 도움으로 분명하게 읽어 내려 갈 수가 있다. 성경은 이처럼 하나님에 관한 혼란된 지식들을 우리 마음에 하나로 집중시키고 흑암을 쫓아버리며, 참 하나님에 대한 명백한 견해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다. 그리고 교회를 교훈함에 있어서 하나님은 무언의 교사들을 사용하실 뿐만 아니라, 자기의 거룩한 입을 열으시며 마땅히 어떤 하나님에게 경배를 드려야 한다고 선언하십시오과 함께 바로 자신이 경배를 받아야 할 존재임을 선언하신다.”⁴⁹⁾ 우리는 이 성경에서 하나님에 관한 여러 가지 지식을 얻게 된다. 아담으로부터 시작하여 노아, 아브라함, 그리고 모든 조상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알게 되었는가 하는 기록들이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거짓 신과 참 신이 어떻게 다르며, 참 신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무엇을 하셨는지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를 우리는 이 성경에서 알게 된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성경에서 알게 되는 참 신은 온 우주의 창조주요 구속주시라는 것도 알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참 신만이 경외함을 받아야 하며 예배의 대상이 된다고 가르치는 것이다.⁵⁰⁾ 이 성경은 인간의 모든 지혜를 초월한다. 그 배열과 위엄, 진리와 단순성, 그리고 그 효과에 있어서 인간이 만든 아무리 인위적으로 잘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성경과 꼭 같은 감동을 우리에게 주지 못한다고 칼빈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데모스테바네스와 키케로를 읽어 보라. 플레토나 아리스토텔레스, 혹은 그와 같은 사람들의 책을 읽어 보라.” 아마 그들은 놀라운 방법으로 독자

48) Ibid, p. 160.

49) 존 칼빈, I. 6, p. 128.

50) Ibid, p. 128.

들을 매혹하며 기쁘게 하며 감동을 주며 황홀하게 만들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그러나 그들의 글을 다 읽고나서 성경을 정독하게 되면 좋컨 싫컨 수사학자들이나 철학자들의 그 아름다움이 거의 전적으로 사라질 정도로 독자를 강하게 감동시킬 것이다.⁵¹⁾ 칼빈은 이렇게 성경이 인간의 최고의 학식이나 상식을 훨씬 능가하는 진리임을 강조하였던 것이다. 그러므로 이 성경을 떠나게 될 때, 우리는 오류에 빠져 방황하다가 마침내는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하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을 이탈하려는 인간의 강한 경향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을 기록으로 남겨야 할 필요를 다음과 같이 말한다.⁵²⁾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쉽게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각종 오류에 빠지는 바가 얼마나 크며, 끊임없이 새롭고 거짓된 종교를 날조하려는 열망이 얼마나 맹렬한가를 생각한다면, 그 하늘 나라의 교리가 망각되지 아니하고, 잘못에 빠지지 아니하며, 인간의 추측으로 부패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반드시 시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었다는 것은 쉽게 이해할 수가 있을 것이다.”⁵³⁾ 이 성경은 일반 계시가 전달할 수 없는 것을 우리에게 전달한다. 인간의 정신은 무력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의 도움이 없이는 사역들을 바로 평가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의 타락한 판단에 따라서가 아니라, 영원한 진리의 법칙인 성경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설경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참된 인식이 인간의 마음에 심어질 때에만 모든 오류들을 그 마음에서 근절시킬 수 있는 것이다. 이 성경을 높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은 것은, 로마 교회의 주장처럼, 그것이 교회의 권위에 의해서 인정되기 때문이 아니었다. 그렇다고 해서 인간의 이성이나 승인이 승인한 때문도 아니었다. 성경의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지 교

51) 기독교 강요., I. 8. 1, p. 147.

52) 신복윤, Ibid, p. 261.

53) 기독교강요., I. 6. 3.

회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성경이 하늘로부터 온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으로 고려될 때만이 성경은 그 완전한 권위를 얻게 된다. 성경의 권위가 교회의 결정에 따라 얻어진다고 생각하는 것은 치명적인 오류이다. 칼빈은 로마 교회를 맹렬히 공격한다.⁵⁴⁾ “교회의 투표에 의해서 그들에게 인정될 때에만 비로서 성경이 많은 무게를 가진다고 하는 가장 해로운 오류가 널리 유행하였으니, 이는 마치 하나님의 영원하시며 침범할 수 없는 진리가 인간의 전횡적의지에 좌우된다고 하는 말과 같은 말이다.”⁵⁵⁾ 성경의 권위가 교회나 이성에서 오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령의 증거를 통해서 알게 된다.⁵⁶⁾ 칼빈의 주장을 들어보자. “성령의 증거는 이성을 능가한다고 나는 대답한다. 이것은 하나님만이 자기 말씀에 대해서 충실한 증인인 것처럼 그 말씀도 또한 설령의 내적 증거에 의해서 입증되기 전에는 사람의 마음에서 신뢰를 얻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그 성경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어, 하나님께서 맡기신 말씀을 저들이 충실히 증거하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확신시킬 필요가 있는 것이다.”⁵⁷⁾ 성령의 내적 증거를 통하여 가르침을 받은 사람은 성경을 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그 권위를 스스로 증거한다고 믿는다. 성경은 증명이나 논리의 문제를 이성에서 얻는 것이 아니라 응답 받아야 할 신뢰를 성령의 증거에 의해서 얻는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칼빈은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떠나서는 신학도 없으며, 진리가 없으며, 성경 말씀 앞에는 인간의 어떠한 사상도 경험도 이에 대립할 수 없다고 보았다. 그러므로 칼빈 사상에 있어서 최대의 특징은 “성경적이다”라는 것이다.⁵⁸⁾

54) 신복윤, Ibid, p. 262.

55) 기독교강요., I. 7. 1.

56) 신복윤, Ibid, p. 263.

57) 기독교강요., I. 7. 4.

②칼빈이 강조한 것은 성례였다.

칼빈은 성례를 이렇게 정의하였다. “성례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한 신앙을 강화하기 위하여 자비의 약속을 우리 양심에 인쳐 주시는 유형적 표호이다. 그리고 우리편에서는 하나님과 천사들과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경건을 증명하는 의식이다.”⁵⁹⁾ 우리는 이 정의에서 성례는 우리의 신앙을 강화하기 위한 약속이 확증이라는 것을 보게 된다. 그러므로 성례는 그 약속에 아무 것도 첨가하지 못하고, 다만 그것을 믿게 하는 수단이 될 뿐이다.⁶⁰⁾ 칼빈은 이 사실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우리의 신앙은 보잘 것 없이 미약하기 때문에 모든 면에서 받쳐주고,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유지되지 않는 한, 그것은 흔들거리고 동요하며 비틀거리다가 마침내는 무너지게 된다. 그래서 긍휼하신 하나님은 무한하신 자비에 따라 우리가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셨다. 실로 우리는 항상 땅 위를 기어다니며, 육신에 집착하고 영적인 일에는 아무런 생각도 아무런 상상도 하지 않는 동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을 낮추셔서 지상적인 요소들을 사용해서 까지 우리를 자신에게 인도하시며, 육신적인 것에서 영적 은사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⁶¹⁾ 그러면 칼빈의 성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자. 먼저 세례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했는가? 그의 세례관은 루터와 츠빙글리의 세례개념을 결합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칼빈이 세례가 그리스도인의 선언이라고 주장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세례의 영적 내용이었다.⁶²⁾ 세례는

58) 신복윤, Ibid, p. 263.

59) 기독교강요., IV. 14. 1.

60) 신복윤, Ibid, p. 264.

61) 기독교강요., IV. 14. 3.

62) 신복윤, Ibid, p. 264-267.

칼빈에 있어서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기 위하여 교회의 회원으로 받아들여지는 입회의 표”⁶³⁾이다. 칼빈은 세례의 세 가지 유익을 말하면서 세례의 의미를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 첫째로 세례는 사죄의 표이다. 둘째로 세례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함께 살아나는 것을 의미한다(롬6:3,4). 셋째로 세례는 신자가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그의 모든 축복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⁶⁴⁾ 칼빈은 갈라디아서 3장 26, 27절을 통해서 이 사실을 입증한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입었느니라” 칼빈은 그리스도를 세례의 완성이며, 이러한 이유에서 세례의 진정한 목적이라고 하였다. 다음으로 칼빈의 성찬관은 어떤 것인가? 칼빈은 1537년 스트라스부르크 시절에 쓴 성찬소론에서, 로마 교회의 화체설을 정죄하고, 루터와 쾰링거도 로마 교회의 오류를 시정하지 못했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칼빈 자신은 엄정한 로마 교회의 오류를 시정하지 못했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칼빈 자신은 엄정한 중도의 길을 찾으려고 애썼다. 영적 양식이 주님을 통해서 주어지지만, 성찬도 역시 복음의 약속을 보증하고 날인하며, 감사의 마음을 깨우치고, 생활의 성결을 가르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성찬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의 거울이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는 성찬의 실체요 기초로써 떡과 포도주라는 요소를 통하여 자신의 살과 피를 주신다.⁶⁵⁾ 칼빈은 기독교 강요 제4권 제17장에서 성찬론을 훌륭하게 정리하고 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그의 살과 피에도 참여한다. 그리스도의 몸이 거기에 현실적으

63) 기독교강요., IV. 15. 1.

64) 신복윤, Ibid, p. 265.

65) 신복윤, Ibid, p. 266.

로 임재하는 것이다.”⁶⁶⁾ 이것이 그의 성찬론의 요점이다. 칼빈은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분명히 성찬에서 주어진다고 말함으로 그리스도의 임재를 부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는 성찬식과 함께 성령께서 역사하시며, 이 역사를 통하여 하늘에 계시는 그리스도의 살과 피에 참여하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칼빈은 그리스도의 임재를 강조하지만, 루터처럼 현실적인 살과 피가 성찬식의 요소와 함께 주어진다고 보지 않았다. 그것은 영적인 임재이다. 그는 성찬에서 “그리스도와의 일치”를 강조하고, 이것은 성찬식 그 자체의 역사보다는 성령의 역사라고 생각하였다. 우리는 성찬에 관한 칼빈의 견해를 영적 임재설이라고 부른다. 루터나 칼빈은 다같이 성찬에 있어서의 그리스도의 임재를 믿고 있었다. 루터에 있어서 그것은 그 요소들 속에, 그 요소들 밑에, 그리고 그 요소들과 함께 임재한다. 그러나 칼빈에 있어서는 성령에 의한 임재이다. 칼빈은 루터에게서 아직 로마 교회의 잔재가 남아 있음을 볼 수 있었다. 성찬은 유형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아무나 참여할 수는 없다. 그래서 칼빈은 회개의 증거가 있는 사람 한에서 성찬을 허락하였다.⁶⁷⁾

③칼빈이 강조한 것은 권징과 훈련이다.

권징은 말씀을 순수하게 유지하며 성례를 거룩하게 지키는데 매우 필요하다. 교회가 할 일은 복음을 전파하고, 성례를 시행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는다. 교회는 성화의 생활을 해 나가도록 신자들을 지도하며 도와야 할 의무를 갖는다. 만일 교회의 설교가 헛되지 않고, 성례가 신자들의 신앙을 충분히 강화할 수 있기를 원한다면, 교회는 모든 오류에서 피하기 위해 끊임없는 자아반성이 필요하고, 때에 따라서는 권징이 필요하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목을

66) 기독교강요., IV. 17. 3.

67) 신복윤, Ibid, p. 267.

끄는 것은, 칼빈이 교회의 권징을 아주 강조하면서도 그것을 참된 교회의 표지 가운데 하나로 삼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는 그트라스부르그의 개혁자 부처의 영향을 많이 받았지만, 이 점에서는 그와 견해를 달리 하였다. 루터가 교회의 두 표지 즉 복음전파와 성례의 시행을 주장한데 대해서 부처는 여기에 권징을 하나더 가했던 것이다. 칼빈에게 있어서 권징은 물론 중요했지만, 교회의 본질적인 것은 아니었다. 그것은 단순히 방어의 표준이며, 성화의 수단이었다. 그러므로 칼빈에 의하면 그것은 교회의 조직에 속한 것이지, 교회의 정의에 속한 것은 아니었다. 교회는 비록 그것이 지상에 존재하는 한, 항상 불완전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성화를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 교회는 확실히 그리스도의 몸이지만, 그 회원들이 현재 죄인이라는 사실 때문에,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이 되려고 항상 힘써야 하는 것이다. 교회는 교리의 혼란과 회원들의 건덕상의 문제가 있을 때, 말씀의 순결과 성도들의 성화의 생활을 보존하는 수단으로 권징을 시행해야 한다. 교회에 혼란이 있고, 회원들에게 추한 행동이 있을 때, 이것들은 모두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 된다. 그러므로 신자와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리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의 위엄을 위해서 권징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이 권징은 특히 그리스도와의 신비적 연합을 의미하는 성찬에서 더욱 그 필요성을 절감하게 된다. 성찬과 관련된 이와 같은 권징의 관념은 칼빈이 제네바 제1차 체류시절에 가졌던 것과 마찬가지로 바젤과 스트라스부르그의 지도자들도 이를 그대로 수행하였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교회로서의 그 특징을 보존하고자 하면, 권징은 필수 불가결한 것이 된다. 일찍이 1536년 칼빈은 권징의 목적을 다음과 같이 셋으로 구분하였다.⁶⁸⁾ 첫째로, 권징의 목적은 하나

68) 신복윤, Ibid, p. 268-269.

님의 이름을 높이는데 있다. 둘째로, 칼빈은 선량한 사람들이 악인들과 교제함으로 부패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데 권징의 목적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근친상간하는 자를 형제들 중에서 끊어 버리라고 하면서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고전5:6)고 경고하였다. 칼빈이 바울의 이 말씀을 인용할 때 그 마음에 두고 있었던 것은, 신자들이 엄격한 종교적 태도뿐만 아니라 그들의 윤리생활까지도 생각에 넣고 있었던 것이 분명하다. 이 사실은 칼빈이 제네바 교회회의에 제출한 지도 방침을 보아 충분히 입증된다. 그러므로 오늘날 어떤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교회에서 권징을 시행한 것은 신자들의 도덕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고만 말하는 것은 잘못이다. 그러나 칼빈이 생각하고 있던 이 권징은 세속적 사법권과는 전혀 다른 것이요, 법적 성격을 띠지 않은 것이 아주 명백하다. 그것은 억압적인 것도 아니며, 그렇다고 해서 단순히 공중질서를 보호하려고 의도된 것도 아니다. 칼빈의 셋째 목적에서 제시한 대로 그것은 언제나 영혼의 치료에 있었다. 칼빈은 권징의 셋째 목적을 파문 당한 자가 회개하여 마침내는 회복되도록 하는데 있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악을 행한 자들이 자신의 구원을 위하여 벌을 받고, 교회의 채찍을 맞음으로 그들의 과오를 인식하게 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바울은 고린도 사람들을 사단에게 내어 주었다고 하면서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 얻게 함이라”(고전5:5)고 하였다. 즉 바울은 그를 임시로 정죄함으로 영원한 구원을 얻게 한 것이다. 이와 같이 권징의 최초적인 목적은 교육적인데 있었던 것이다. 칼빈은 위에서 본대로 권징은 영혼의 치료에 있고, 교육적인 의미를 가진다고 보았다. 그래서 그는 훈련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제네바시민을 훈련시키는데 엄격하였으며 남달리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칼빈은 훈련세칙을 만

들었다. 그는 제2차 제네바 생활을 시작했을 때, 1541년 1월 19일 제네바 교회법칙(Ordonances Ecclesiastique de Geneva)을 만들고, 1542년 1월 2일부터 이를 시행하였다. 이 법규에 중요한 것을 요약하면, 첫째로 교회제직에 관한 법이다. 이 법은 교회 제직의 종류, 자격, 임무를 규정하고 있다. 제직은 목사, 교사, 장로, 집사로 되어 있으며, 목사의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성례전을 거행하며, 장로와 함께 훈련을 시행한다. 목사의 자격은 먼저 거룩한 소명감이 있어야 하고, 엄격한 시험을 거쳐서 임명되어야 한다. 그리고 목사는 특별히 자기 자신을 엄격하게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했다. 교사의 할 일은 주로 성경을 해석하는 일과 집사는 빈민 구제와 병자들을 방문하는 일이라고 규정했다. 둘째는 성직회(La Venerable Compnie)에 관한 법이다. 이회는 제네바에 있는 5인의 목사와 신학교수와 지방 목사로 조직되었다. 성직회는 목사들의 활동과 시민의 도덕적 훈련을 위해 특별히 만들어진 기관이었다. 이 성직회에서는 신학교 교육문제, 목사 후보생 시험문제, 예배 관리문제, 그리고 교리 논쟁과 같은 문제들을 결정하였으며, 매주 한 번씩 소집되었다. 셋째로 감독원(Consistoire)에 관한 법이다. 이 감독원을 주로 장로로 구성되었다. 성직회가 종교적 방면을 관장한다고 하면 감독원은 도덕적 방면을 관장하며, 교회원 전반의 도덕 상태를 감시하는 것을 임무로 하였다. 이 감독원은 제네바에서 도덕적 훈련의 실권을 장악하고 있었으며, 실제상의 행동, 언어, 사상에 이르기까지 전부 관리하고 있었다. 넷째로 예배와 성례전에 관한 규정이다. 예배는 주일날에 적어도 두 번 이상 드려야 한다. 먼저 죄를 회개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시편 찬송가를 부르고, 기도하고, 설교하고, 감사하고, 축복하는 순서로 예배가 진행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회화, 조각, 그리고 상등, 신령과 진리로 예배드리는데

방해가 되는 것은 모두 제거하도록 규정되었다. 예배 외에 청소년 교육과 건덕을 위한 시간을 정하여, 16세까지는 반드시 여기에 참석해야 하고, 이 과정을 거친 후에야 성찬 예식에 참석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같이 제네바 법규를 어길 때 상하를 막론하고 엄벌에 처했다. 이 법규가 너무 엄격했기 때문에, 시민들은 큰 불편을 느꼈으며, 그래서 칼빈에게 결렬한 반대를 하였다. 그러나 칼빈은 그들의 반대에 대하여 조금도 동요하지 않았다. “이런 협박은 나에게서는 하등의 관심도 없다. 내가 제네바에 돌아온 것은 한가함과 이익을 얻고자 함이 아니다. 만일 다시 제네바를 떠난다 해도 여기 돌아오게 한 것은 교회와 국가의 안녕과 행복에 있었다.”⁶⁹⁾

④칼빈이 주안점을 두고 힘쓴 것은 교육이었다.

칼빈의 목회는 말씀의 설교와 성례, 권장을 포함하는 훈련, 그리고 교육으로 요약될 수 있다고 하겠다.

칼빈은 예배를 통해서 신자들을 바로 교육하였다. 그는 예배에서 설교의 위치를 높였으며, 전통적인 예배형식을 제거하고 간소화시켰다. 교회의 제 1차적인 임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가르치는 것으로 보고 그는 설교를 예배의 중심으로 두었다. 칼빈은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라는 신학적 확신 때문에 제네바 시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자기 잘못이 아니라 할만큼 자주 설교를 하였다.

칼빈은 설교 이외에도 성경 교육의 하나로 어린이와 청소년과 장년등 교인 전체를 대상으로 하여 요리문답 교육을 철저히 시켰다. 칼빈은 당시(첫 제네바 시대) 제네바에서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되었던 것은 일반시민과 청소년,

69) 신복윤, Ibid, pp. 270-272.

그리고 어린이의 종교 교육이었다. 그래서 그는 그 유명한 제네바 요리문답서를 만들었다. 이 문답서는 기독교 강의의 개요라고 말할 수 있으며, 얼마 안 가서 이 책은 모든 개혁신과 교회의 교리 표준서가 되었다. 1주년 55주에 할당하여 매 주일에 한 문답씩 가르치도록 되어 있다. 칼빈은 이 책에서 목사와 신자가 묻고 대답하는 것으로 하였는데, 이것은 교육에 대한 칼빈의 큰 공헌 가운데 하나였다. 16세 이하의 어린이는 예배 외에 교육시간을 정하여 성경과 요리문답의 철저한 교육을 받게 하였고, 16세 이상이 되어 성찬식에 참여하게 되면, 예비교육으로 요리문답 교육을 받게 하였다. 이 교육에서 루터는 교육 책임자는 가장인 아버지로 본데 반하여 칼빈은 목사로 규정하였다. 그는 요리문답의 교육이 공교회적 성격을 띠는 것이라고 보았던 것이다. 이 요리문답의 교육은 가정과 학교의 협력을 받아가며 이루어졌다.⁷⁰⁾ 칼빈은 또한 어린이의 가정 교육을 강조하였다. 그는 “교회 조직과 예배에 관한 제의서”에서, 모든 어린이에게 신앙의 단순한 개요를 가르칠 것과 1년중 일정한 시기에 목사 앞에서 문답하고 시험을 받을 것, 그리고 충분하다고 인정될 때까지, 부모들은 인내로써 자기 자녀들을 잘 지도하라고 부탁하였다. 그리고 부모들은 그들 자녀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하며, 바로 지도 못했을 때는 벌금을 내야 한다고 하였다. 한편 부모들은 자녀에게 교리를 가르치며 신앙생활을 지도할 수 있도록 목사로부터 훈련을 받았으며, 장로들은 각 가정에 가서 자녀교육이 잘 수행되고 있는지 부모들을 감독하였다. 또한 부모들은 그들의 자녀뿐만 아니라, 모든 집안 식구들, 즉 일꾼들에게도 성경을 가르치고, 경건에 이르도록 지도해야 했으며, 정기적으로 가정 예배를 드려야 했다. 당시 제네바의 모든 부모들은 이 책임을 수행하였으며, 그러나 이 교육적 책임

70) 신복윤, *Ibid.*, pp. 273-274.

을 소홀히 한 부모들은 종교법원에 의해 견책을 당하기도 하였다.⁷¹⁾ 칼빈은 역시 하나님을 알고 그를 영원토록 영화롭게 하려는 인간의 기본적인 목적을 품고, 학교 교육을 통하여 개혁신앙과 신학을 전수하려고 하였다. 칼빈의 교육활동 거운 데 괄목할 만한 것은 학교 설립에 관한 것이다. 이것은 루터로부터 시작된 대중 교육의 새로운 형태를 발전시킨 것으로 교육사적으로 볼 때에도 큰 의미가 있다. 칼빈은 1541년 스트라스부르그 생활을 끝마치고 돌아왔을 때, 교육에 대한 자기의 꿈을 시의회에 보여 주었고, 마침내 그의 끈질긴 노력으로 1559년 6월에 제네바 대학이 설립하게 되었다. 칼빈은 제네바 대학을 교회의 감독 아래 두고, 각 교사들은 엄격한 교회의 훈련을 받게 하였으며, 교회에 의해 임명받도록 하였다. 제네바 대학은 당시 전 서구의 젊은 학생들이 선망의 대상이 되어 유럽 각지에서 많은 학생들이 운집하였다. 그래서 1570년경에는 1,500년 정도의 학생이 공부하고 있었다. 이 대학은 대학과 함께 유치원에 고등학교까지 있는 현대 교육의 시초가 되었다. 그리고 교양과목과 그 밖의 학과들을 통한 다양한 학문연구와 신학연구를 연결시켰다는 데 그 특색이 있다. 우리는 위에서 칼빈의 목회에서 네 가지 특징적인 원리가 있음을 찾아보았다. 칼빈은 말씀을 순수하게 전파하고, 성례를 바로 사행하는데 힘썼으며, 따라서 이 둘을 헛되지 않고 신자들의 신앙을 강화할 수 있기 위하여는 끊임없는 자아 반성이 필요하고, 때에 따라서는 권징이 시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칼빈의 목회원리는 16세기뿐만 아니라 20세기, 21세기에 도 절실히 요청되는 목회이다. 더욱이 한국 교회가 바로 서는 길은 그의 목회 원리가 적용될 때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⁷²⁾

71) C. B. Eavey, 기독교교육사, (서울: 한국기독교연구원), 1986, p. 168.

72) 신복윤, Ibid, pp. 274-275.

IV. 칼빈주의적 개혁신앙과 한국교회의 중심사상

1. 한국적 사상과 기독교 사상의 차이점

한국의 사상은 대체적으로 말해서 불교, 도교, 유교 그리고 샤머니즘적인 민간종교에 뿌리를 두고 있다. 이러한 종교들은 다소간의 차이는 있지만 창조주 신앙을 결여하고 있어서 범신론적 사상을 특징으로 한다. 만물 안에 신이 있다. 아니 만물이 신이다 그리고 인간은 자연의 일부이고 자연과 하나이다. 그래서 자연과의 합일을 강조하는가 하면 자연을 거스리는 것은 바로 신을 거스리는 것으로 간주하여 자연을 두려워한다. 그리고 운명론에 빠져 자연의 순리에 피동적으로 적응하려 한다. 적극적으로 삶을 창조성 있게 살려고 하지 않고 사주팔자에 따라 산다. 그런가 하면 정신집중을 통해 초월명상에 잠겨 자연과의 합일에 도달하려 하며 그것을 깨달음이라 한다.⁷³⁾ 이에 반해 기독교 신앙은 창조와 구속의 하나님을 믿는 유신론이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며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어 지금도 변함없이 일하시고 즉 섭리(만물을 보존하며 통치하는 일)하시며 역사를 주관하고 계심을 믿는⁷⁴⁾ 것이 기독교 사상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순종하고, 그의 뜻에 합당하게 연구하며 열심히 삶을 살아야 한다. 또한 인생을 적극적으로 살아야 한다.

2. 성경의 기본사상과 오늘날의 위험한 사상

오늘의 시대적 배경을 총체적 난국⁷⁵⁾ 또는 위기(I. M. F)시대라고 한다. 6.25사변이 일어난 이후로 50여년간 정치적 활동을 회복하지 못하고, 과열된

73) 나용화, 칼빈과 개혁신학,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4, p. 98.

74) Ibid, p. 90.

75) 나용화, Ibid, p. 103.

경제는 투기, 향락소비, 과소비 풍조에 의해 사회가 병들어 가고 있다. 급성장해온 기독교 마저 사회에 대항하여 정신적 지주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사탄적 대중음악이 판치는 이때에 기독교가 이 시대에 걸맞은 윤리의식과 올바른 규범을 제시해야 할 입장이다. 성경적 유신론(thism)사상이 오늘날 범신론 사상으로 대치되고 기독교의 진리가 역사적 사실성이 부인되는 가운데 이웃 섬김이 종교의 전부인 것처럼 주장하는 인본주의 윤리가 크게 득세하게 된 주요한 원인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신적 권위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그 말씀의 생명력과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게 되고 이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재와 그의 구원 사역에 대하여 확신을 갖지 못한데 있다.⁷⁶⁾ 그런 까닭에 오늘의 사상적 당면과제는 유신론의 회복 곧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복음의 신적 권위가 회복되어 복음으로 모든 사상을 상대화시키는 것이다(참조, 고후 10:5). 항상 있고 살았으며 운동력이 있어 날 쉰 예리한 검보다 강한 성경을 가지고 있는 성경(히 4:12)의 권세를 교회가 늘 깊이 체험해야 한다. 그래서 성경이 모든 진리와 윤리의 객관적이고 절대적인 규범으로 그 기능을 다할 때 오늘의 사상적 위기가 극복될 수 있다.⁷⁷⁾

3. 한국교회의 현실적 당면과제

정치, 경제, 사회, 교육, 종교의 전반에 걸쳐 구조적인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 권위주의와 무분별한 교육현상, 무질서한 종교 교육, 교회의 기복 신앙 등이 사회와 교회의 악의 뿌리로 깊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복음으로 능력을 옷입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위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겸허와 두려움을

76) 나용화, Ibid, p. 108.

77) 나용화, Ibid, p. 108.

가지고 갈며 옆으로는 이웃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여 이웃을 존중하고 먼저 생각해 주며 섬기고 아래로는 자연을 사랑으로 관리하여 절제와 겸손한 삶을 자원(예, 성규나 음식물 등)을 과소비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우리가 복음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때 이 세상을 위한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현실적 당면과제를 점진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을 것이다.⁷⁸⁾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 많은 영혼을 구원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일을 온전히 감당하게 되는 것이다.

78) 나용화, Ibid, pp. 113-114.

V. 결 론

교육에 목소리를 높이는 오늘날 가정과 교회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교육의 방향을 이끌어 나가느냐 하는 것은 너무 중요한 일이다. 또한 진리가 왜곡되는 세상에서 진리가 무엇인지, 어디에 있는지 발견하기란 더욱 힘들다. 종교개혁 시대에도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잘못 알려주는 관행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그나마 하나님 앞에 진실된 종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오늘날도 교육의 열을 올리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 진실된 모습으로 온전히 서 있어야 할 것이다. 진실된 모습으로 겸허하게 진리 안에서 온전히 탐구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한다. 교회생활과 사회생활이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종교개혁 시대에도 이러한 현상이 있었다. 이것은 진리가 없기 때문이다. 바로 믿고, 따를 수 없는 진리가 없기 때문이다. 이제는 많은 양을 주입시키려는 물량주의에서 한가지를 알아도 바른 것을 알아 온전히 행동할 수 있는 진리의 말씀을 교육해야 한다. 이런 교육의 현상은 당연히 교회에서 먼저 노력을 해야 한다. 물질에 눈이 어두워 바른 질리를 알지 못하고, 바른 행동을 하지 못한다면 이 시대는 꺼져가는 등불과 같을 것이다. 그러나 꺼져가는 등불도 밝히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꺼져가는 등불을 밝히기 위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서 겸허한 모습으로 펜과 입술을 움직여야 한다. 전통을 무시하고 자기 생각으로 교육하는 관행은 어디에서 온 것인가? 신학의 부제라는 말이 있듯이 바른 신학을 하기 위해서는 교회의 역사를 통해 바른 신학을 정립해야 한다. 내 생각을 앞세우기 전에 겸허하게 그들의 못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이러한 학문의 미덕이 없다면 오늘날 신학은 사공 없는 배와 다를바 없다. 아무쪼록 교회, 신학교, 일반학교, 사회에서 먼저 하나님 앞에 겸허한 마음으로 학문의

진리를 받아 들이고, 그 진리를 탐구하고, 바른 교육을 해야 한다. 칼빈이 암
흑속에 있던 신학의 모습을 하나님의 도움으로 바른 학문의 길을 탐구하고,
교육 했듯이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바로서서 잘못된 것은 과감히 처단하고,
바른 것은 교육의 계승을 이어나가야 한다.

참고문헌(Bibliography)

<1.국내문헌>

- 1.박용규, 이성과 자울의 시대 근대교회사, 총신대출판부, 1995.
- 2.김하진, 주제별 칼빈주의, 한국문서선교회, 1995.
- 3.나용화, 칼빈과 개혁신학, 기독교문서선교회, 1994.
- 4.신복윤, 칼빈주의신학사상, 성광문화사, 1993.
- 5.정학봉, 기독교 기본신앙, 도서출판동서남북, 1997.
- 6.이은규, 교회학교 교육계획과 실제, 서울: 도서출판 잠언, 1996.
- 7.장종철, 기독교교육역사, 감리교신학대학부출판부,1993.
- 8.이석우, 기독교사관과 역사의식, 성광문화사, 1992.

<2.번역문헌>

- 1.존칼빈, 기독교 강요, 김종흡, 신복윤, 이종성, 한철하 공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6.
- 2.존칼빈, 영.한 기독교 강요, 편집부역, 기독 성문출판사, 1993.
- 3.C. B. Eavey, 기독교교육사, 김근수, 신청기 공역, 서울: 한국기독교교육연구회, 1986.
- 4.루이스 벌코프, 기독교 교리 요약, 박수준역, 서울: 소망사, 1992.
- 5.윌리엄 R. 케논, 중세교회사, 서영일역, 기독교문서선교회, 1995.
- 6.루이스 W. 스피츠, 종교개혁사, 서영일역, 기독교문서선교회, 1994.
- 7.헨리미터, 칼빈주의, 박윤선. 김진홍 옮김. 개혁주의신생협회, 1994.
- 8.유스토 L. 곤잘레스, 서영일역, 서울: 도서출판 은성,1995.

- 9.샤리틀, 사미자웁김,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출판국, 1991.
- 10.리차드R. 오스머, 사미자웁김, 신앙교육을 위한 교수방법, 한국장로교출판사, 1995.
- 11.엘리더다니엘, 존W. 웨이드, 찰스 그레삼, 이은규웁김, 도서출판동서남북, 1993.
- 12.D. C 와이코프, 김국환웁김, 서울: 성광문화사, 1992.
- 13.김폴린, 한국기독교교육의 역사, 대한기독교서회, 1992.
- 14.케니스 O. 갠글, 위랜 S. 벤슨공저, 유재덕역, 기독교문서선교회, 1992.
- 15.루이스 조셉 세릴, 이숙종웁김, 기독교 교육의 발생, 대한기독교서회1994.